

보건문제 개선 위한 실무토의

健協, 제2차 보건관리자 교육 실시



健協은 '89년도 제2차 보건 관리자 교육을 지난 10월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실시했다.

일선 보건 실무 담당자와의 상호 논의를 통해 국민 보건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건 담당자의 보건 의식 향상과 이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인천에서 있었던 제1차에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 보건과장, 보건실 무담당자를 비롯해, 경주시 부지사, 보건 사회부 및 건협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관영 건협 사무총장은 개회사

를 통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일하고 있는 보건담당자와 건협의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보건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동일의 목표를 두고 있는 보건담당자와 건협이 동반자적이고 동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호 협조하여 일을 해나간다면, 국민건강관리의 정착은 한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金相祚 경상북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대의 국민 건강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발전과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진료, 의료의 합리적 이용 등에 대한 국민 계몽의 새로운 활동 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사회부 송인정 보건교육과장의 “정부의 보건 시책 방향”,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맹광호 교수의 “건강진단의 예방보건학적 의의와 그 확대 방향”, 경북의대 기생충학과 최동익 교수의 “특수 기생충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교육생과의 토의가 있었다.

해외 건강관리사업 현황 연구

- 해외 연수자 간담회 개최



健協이 해외연수자 간담회를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지부 홍보관에서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8월에 실시된 바 있는 대만 및 일본 연수 교육 시 습득된 내용을 참가자의 상호 의견 교환과 주제 발표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종합하여 사업추진 및 업무 수행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정웅 총무부장(대만 기생충 방지회 연수), 김봉수 총무과장(일본 예방의학사업 중앙회 연수), 양재희 사업과장(일본 나고야 공중의학 연구소 연수) 등 본·지부 과장급 이상 연수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의되었던 주요 내용은 사업추

진 사례, 홍보사업 현황, 행정, 검사체계 및 장비 현황, 조직체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X-Ray기기 제작과정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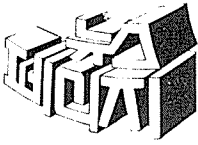
심전도기기 제작 현황도



健協 본부 및 서울지부, 대전·충남지부의 부실과장을 비롯한 X-Ray 담당 방사선사 등이 지난 10월 13일 (주)동아 X-Ray 공장(충남 유성 소재)을 방문, X-Ray 기기 제조 과정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X-Ray 기기의 올바른 이해와 선택, 이용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위해 실시되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에는 (주)유진 의료전자를 방문, 심전도기기 제작 과정 및 이용 범위에 대한 견학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다.



11월 건강관리 공개강좌 “신장질환”

-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보관



健協은 11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지부 홍보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공개강좌에 주제는 ‘간장질환’으로 간장질환의 심각성, 예방과 치료, 생활습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한편 실제 간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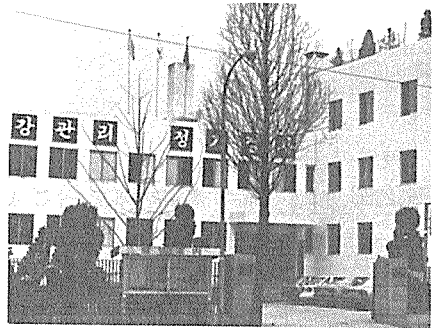
한편 지난 10월 24일에는 10월 공개강좌 “신장질환”이 한양대 내과 강종명 교수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날 강좌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심있는 사람 200여명이 참석, 강의를 듣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자각 증상 등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健協, 창립 25주년

- 오는 11월 6일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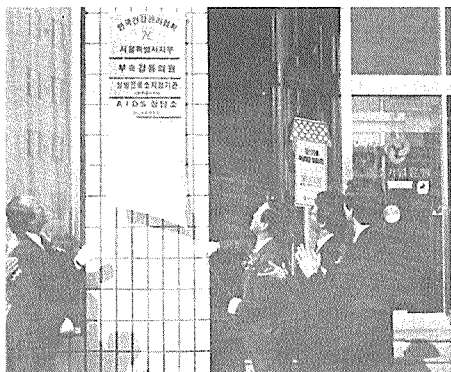
健協의 오는 11월 7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건협은 지난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 협회를 시작으로 하여 기생충 퇴치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해왔으며 오는 11월 6일 기념행사를 갖고 11월 7일은 휴무기로 했다.

한편 11월 6일에 있을 기념 행사에는 장기 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도 있을 예정이다.

강동의원 개설 현판식 가져

-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부속 강동의원의 개설 현판식을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에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건협 이관영 사무총장, 임한중 서울시지부장 을 비롯해 유관인사, 건협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동의원(강동구 천호동 453-15 강동 B/D 5층)은 이미 지난 9월 27일 개원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생충관리사업 현황 파악

- 인도네시아 Dr. Sutoto 내협



인도네시아의 Dr. Sutoto씨가 지난 10월 26일 건협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우리나라 기생충관리의 역

사와 현황, 건강관리협회의 역할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울지부 부속의원의 시설을 둘러 보았다.

한편, Dr. Sutoto씨는 보건사회부의 초청으로 기생충 관리 사업 연수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다.

건협서울지부 직원 체련대회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10월 28일 직원 체련대회를 도봉산에서 가졌다.

이번 체련대회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실시되었다.